

# 그린바이오, 순천의 미래를 연다...기반 구축 박차

### '승주 바이오 특화 단지' 조성 추진...바이오산업 육성 사업 설명회 개최 시, 2025년 용지 분양·2027년 입주...지·산·학 협력 캠퍼스 조성 계획

순천시가 10만평 규모 '승주 바이오 특화 단지' 조성 사업을 추진하는 가운데 '바이오산업 육성 사업 설명회'를 열어 기업 유치에 나섰다.

사업 설명회는 지난 19일 생태비즈니스센터에서 '그린바이오, 순천의 미래를 연다'라는 주제로 열렸다.

이날 그린바이오 산업 기업인 ㈜네추럴앤드텍을 포함해 45개 기업 관계자 150여 명이 참석했다.

설명회에서는 박재규 전 KT&G 원장이 특별 강연(홍삼의 이해)을 하고 박경욱 재단법인 순천바이오헬스케어연구소장이 '기업체의 목소리가 듣고 싶습니다'라는 주제 발표를 이어갔다.

이후 참석자들은 그린바이오 산업화 거점지인 승주읍으로 이동해 도시 조성을 위한 청사진을 확인했다.

이곳에서는 바이오 특화 지식산업센터와 그린바이오 분야 전주기 체계를 구축하는 '전남형 균형발

전 300 프로젝트'의 하나로 '지·산·학·연 집적단지'가 들어선다.

그린바이오 산업은 생물전환과 식품 기술, 화장품, 반려동물 관련 사업을 아우른다.

순천시는 오는 2025년 용지를 분양하고, 2026년 공장 건립, 2027년 수출에 이르는 과정을 계획하고 있다.

승주 생물전환 바이오 특화 지식산업센터는 사업비 320억원(국비 160억원·도비 48억원·시비 112억원)을 들여 4층 9996㎡ 규모로 건립된다. 30개사가 사용할 수 있는 사무실과 연구지원실, 회의실, 휴게 공간 등이 들어선다. 오는 2025년 착공한 뒤 2027년 입주 기업을 받을 예정이다.

'전남형 균형발전 300 프로젝트'로 마련되는 생물전환 관련 사업 4개 핵심 시설은 옛 승주군청 자리에 조성된다. 도비 180억원, 시비 120억원 등 사업비 300억원을 들여 2027년까지 완공한다는 계획

이다.

순천대학교의 '글로벌 30' 지정을 연계해 지·산·학이 협력하는 캠퍼스도 조성할 방침이다.

국내외 180여 명의 학부생, 석·박사 등이 스마트 농축산 분야 기초·실무 교육을 받는다. 전임교수 7명을 포함한 17명의 교수진이 오는 2028년까지 단계별로 구축할 캠퍼스에서 인재를 양성한다.

순천시는 바이오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제도 개선·규제 혁신 등 기업 투자를 원활하게 유치할 수 있도록 행정 지원을 맡는다.

시 출연기관인 순천바이오헬스케어연구소와 재단법인 남해안권발효식품산업지원센터는 소재 개발과 연구 개발(R&D)을 지원한다.

설명회에서는 순천시와 바이오 특화 지식산업센터 입주 예정 기업인 ㈜유엘이 투자 협약을 맺었고, 순천바이오헬스케어연구소·순천엔메실(쥬간 기술 이전식도 함께 진행됐다. '2023 순천의 내일을 잇는 미래 체험회'도 함께 열어 로봇·우주 산업 분야 미래상을 제시하기도 했다.

이어 순천시는 지난해 제정된 '순천시 청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청년이 기업하기 좋은 순천을 위해 활동하는 청년기업인 10명의



순천시가 지난 19일 연 '바이오 산업육성 사업 설명회'에서 기업 관계자 등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순천시 제공>

위원 중 남대 대표에게 위촉장을 줬다. 노관규 순천시장은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이후 순천은 새로운 미래로 갈 것"이라며 "기업의 성장 기반을 마련해 지방소멸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순천=김은중 기자 ejkim@kwangju.co.kr

# 여수 모든 유인섬 뱃길 열린다...3곳 여객선 운항

### '섬섬여수호' 남면 소두라도 등

여수 도서 지역 모든 유인섬에 뱃길이 열린다

여수시는 정부의 '소외도서 항로 운영 지원사업'에 선정됨에 따라 그동안 불편을 겪어 왔던 미취항 유인섬 3개 항로에 올해 안에 섬섬여수 1, 2, 3호를 운항한다고 밝혔다.

소외도서 항로 운영 지원사업은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다. 정부가 지역 내 섬 중 여객선과 도선이 미 기항하고 대체 교통수단이 없는 섬 주민의 보편적 해상교통권 확보를 위해 올해 처음 시행했다.

해양수산부는 이를 위해 지난 3월 소외도서 항로 운영 지원사업 공모를 추진해 전국에 10개 항로를 선정했다. 이 가운데 여수시는 화양면 대운두도와 남면 소두라도, 소항간도 항로가 선정됐다.

8월에는 화정면 주도가 추가 선정됐다. 시는 국비 1억 3500만원 포함 총 2억 7000만원을 확보해 인건비와 유류비 등 선박 운항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한다.

앞서 시는 고흥과 경남 고성에서 해당 항로에 투입할 함척여수호를 확보하는 한편, 약 5개월에 걸쳐



화양면 대운두도·감도 등을 운항하는 섬섬여수1호 모습.

이 여선의 기타 선박 변경 등록해 선박 수리 및 검사 등 수반되는 모든 행정절차를 이행했다.

현재 선장 안전교육도 마친 상태다. 여객선 이름은 '섬섬여수 1호, 2호, 3호'로 명명했다.

지난 19일 화양면 대운두도와 감도를 운항하게 되는 섬섬여수 1호를 시작으로 남면 소두라도와 소항간도·월전을 2호가 추·도·남도를 3호가 순차적으

로 운항에 나설 예정이다.

정기명 여수시장은 "2026여수세계세박박람회를 앞두고 미취항 유인섬에 뱃길이 열려 해당 주민들의 불편이 해소돼 의미가 크다"며 "앞으로도 섬 주민들에게 더 안전한 해상교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여수=김창화 기자·동부취재본부장 chkim@



# 보성군, 독립영화 '꼬막' 제작 지원 협약

### 영화 배경 관광지·특산물 홍보

보성군이 보성 벌교를 배경으로 한 독립영화 '꼬막' 제작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보성군은 지난 19일 김철우 보성군수와 ㈜휴먼글로벌비즈니스 이수돈 대표가 독립영화 '꼬막' 제작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보성군은 영화의 성공적인 제작을 지원하고, (주)휴먼글로벌비즈니스는 영화의 주요 배경을 보성으로 설정해 주요 관광지 및 특산물을 홍보하는 등 보성군의 문화관광 브랜드 가치 제고를 위해 상호 협력하게 된다.

영화 '꼬막'은 보성군 벌교읍을 배경으로 꼬막 양식을 생업으로 살아가는 한 가정의 아버지와

서울로 상경해 가수로 성공하고자 하는 아들과의 갈등 및 화합을 통해 가족의 소중함을 일깨워 주는 가족영화다.

(주)휴먼글로벌비즈니스 이수돈 대표는 "이번 업무협약을 시작으로 보성군과의 상호 소통을 통해 영화 꼬막 촬영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천혜의 자연환경을 가진 보성의 아름다운 풍경을 영화를 통해 널리 홍보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철우 보성군수는 "업무협약을 통한 제작사와의 긴밀한 협조로 영화 꼬막이 성공적으로 제작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이번 영화 촬영을 계기로 영상 문화 콘텐츠를 통한 보성군 홍보 효과 극대화를 위해 관련 사업 육성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보성=김용백 기자 kyb@kwangju.co.kr

# "광양 청장년이 만든 '한 평 집' 지역공동체 마중물 되길"

### 20여 명 건축 기술 등 배워 광양읍 내우마을에 집 지어 쉼터·농산물 거래장터 활용

청년과 중장년 20명이 의기투합해 지은 '한 평짜리' 집이 광양시 광양읍 내우마을에 들어섰다.

광양시는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한 평 집짓기' 사업을 통해 건축한 '한 평 집'에 대한 준공식을 최근 열었다고 20일 밝혔다.

'한 평 집 짓기'는 광양읍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지역역량강화 생애주기별 사업의 하나로 마련됐다.

청년 10명과 중장년 10명이 이 사업에 참여해 주택과 주거환경 이해, 건축 기술 등을 배웠다.

지난 10월12일부터 이달 14일까지 총 10차례에 걸쳐 교육을 받고 한 평짜리 집도 지었다.

사업을 추진한 광양읍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주민위원회는 이 건축물을 내우마을에 기부했다.

이 공간은 마을 쉼터와 농산물 거래 장터로 활



광양시(시장 정인화·오른쪽 세번째)가 광양읍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을 통해 광양읍 내우마을에 지은 '한 평짜리 집' 앞에서 준공식을 열고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광양시 제공>

용될 예정이다.

광양읍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은 총사업비 160억원(국비 112억원·시비 48억원)을 투입해 추진되고 있다.

365센터 등을 조성해 광양읍 중심지와 배후마을을 연결하는 지역 거점을 만들고 공동체 활성화에 힘쓰고 있다.

정인화 광양시장은 "전남 최초의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한 평 집짓기 사업을 통해 내우마을을 움직이는 새로운 동력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농촌 지역의 배후마을과 중심지를 연결해 교육·문화·복지 등의 다양한 분야에서 지속가능한 지역공동체 조성하는 마중물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광양=김대수 기자 kds@kwangju.co.kr

# 구례 주성찬 농촌지도사 '한국농업기술보급대상' 도전상

구례군 농업기술센터는 주성찬(사진) 농촌지도사(기술보급과)가 최근 농촌진흥청 주관 '2023년 한국농업기술보급대상'에서 도전상을 받았다고 20일 밝혔다.

한국농업기술보급대상은 농업기술 보급·교육·훈련 사업을 통해 지역의 농업·농촌 발전에 이바지한 지방 농촌진흥공무원을 선발하는 상이다.

주 지도사는 청년 농업인을 대상으로 경영 실습 임대 농장을 운영하고 구례지역 여름 오이 생리장해 경감 기술을 보급했다.

수박 노동력 절감 수직 재배 기술과 마늘 생력 기계화 재배 기술을 보급하고, 박하 소득과 시범 재배단지를 조성하는 데 앞장섰다.

그는 노동력 절감과 생산량 증대를 위해 임대

농장·스마트팜(점단 농장)을 조성하고 스마트농업 기술을 확산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주 지도사는 원예작물 분야 연구회를 신설해 교육을 진행하고, 해마다 현장 상담을 벌여왔다.

농촌진흥청은 1차 서류 평가(정량·정성평가), 2차 현장 평가를 거쳐 대상을 동료 공무원과 지역 농업인 의견을 들었다. 마지막 3차 발표평가에서 다양한 전문가의 검증과 질의응답을 거쳐 수상자를 결정했다. /구례=이진택 기자 lit@kwangju.co.kr

# 광양시 시내버스 노선 개편...황금지구-중마동 신설

광양시가 황금지구-중마동 노선을 신설하고 중마동 순환 버스를 확장하는 등 시내버스 노선 개편을 추진한다.

광양시는 최근 시청 상황실에서 시내버스 노선개편과 운수업체에 대한 경영진단 용역 최종 보고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설명했다.

광양시는 지난해 9월부터 아·통장 간담회, 시민과의 대화, 설문조사 등을 통해 시내버스 이용 관련 의견을 들었다.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민원과 불편사항 등을 추가 접수했고, 지난달에는 읍면동별 주민 설명회를

열었다.

이번 노선개편은 신규 대단지 아파트의 교통 불편 해소, 시내버스 이용 시민들의 불편사항 해소, 기존 불합리한 노선의 개편 등에 중점을 뒀다. 시민들의 교통 편의를 최대한 증진하고자 시내버스를 증가하는 방향으로 개편안이 구성됐다.

주요 노선 개편 내용으로 ▲황금지구-중마동 신규 노선 ▲광양읍 서회, 흥한에르가 등 노선 경유 ▲중마동 순환 버스 확장 ▲태안-금호-광영-옥곡-광양읍 신규 연결 노선 ▲등·하교 시간 배차 확대 ▲육곡면 환승 정류장 환승 시간 단축 등이

있다.

광양시는 최종 노선개편 안을 가지고 운수업체인 ㈜광양교통과 협의해 시내버스 11대를 증차하고 운수종사자 채용, 시간표 조정 등의 노선개편 작업을 착수할 방침이다. 내년 상반기 중 단계적으로 버스를 투입해 노선개편을 시행한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정인화 광양시장과 최대원 광양시의회 산하건설위원장, 김보라 의원, 읍면동별 이·통장, 주민자치위원회, ㈜광양교통 등 35여 명이 참석했다.

한편 현재 광양시 시내버스 운행 노선은 2019년 시내버스 노선 개편 용역을 실시해 전면 개편해 2020년부터 운영하는 노선이다. /광양=김대수 기자 kds@kwangju.co.kr

# 순천시, 택시 호출 '미인콜' 마일리지 시범 운영

최대 5% 적립

순천시가 내년 1월1일 정식 출시하는 택시 호출 서비스 '순천미인콜' 이용자를 늘리기 위해 '마일리지 제도'를 20일부터 시범 운영한다.

'순천미인콜' 택시 마일리지는 자동결제제를 이용하는 승객들에 한해 적용된다.

택시 요금의 일부를 포인트로 적립하고 누적된 포인트는 다시 요금으로 결제할 수 있다.

스마트폰으로 '순천미인콜'이나 '아이니비'를 검색해 모바일 앱을 내려받으면 서비스를 이

용할 수 있다.

자동결제 서비스를 이용하면 요금의 5%(최대 500포인트)를 적립할 수 있다.

순천시는 택시 호출 서비스 정식 출시에 앞서 택시 이용이 많은 연말에 이용자를 확보하기 위해 이번 시범 서비스를 마련했다.

순천시 관계자는 "이번 서비스 출시를 통해 택시를 이용하는 시민이 조금이나마 부담을 덜었으면 좋겠다"며 "코로나19 이후 어려움에 부딪친 지역 택시업계의 경영난 해소에도 도움이 됐으면 한다"라고 말했다. /순천=김은중 기자 ejkim@